

# 박상우 장관, 취임 후 적극적인 교통 분야 민생 행보 나서

- 29일 오전 중앙선 KTX-이음 서울역 연장 개통식 · 오후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찾아  
... 연말연시 철도운송 ·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종사자 격려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(금)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중앙선 KTX-이음 서울역 연장 개통행사에 참석하고, 연말연시 운송대책도 점검하였다.
  - 이날 개통행사에는 철도이용자와 철도관계자를 비롯해 엄태영·박형수 국회의원, 김창규 제천시장, 권기창 안동시장, 한문희 코레일 사장 등 중부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.
- 박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“이번 중앙선 KTX-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\*으로, 국민들께서 더 이상 청량리역에서 환승을 하지 않고도 서울역으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되었다”면서, 중앙선 KTX-이음 연장 운행의 의미를 강조하였다.
  - \* ①12월 29일부터 기존 청량리~안동 KTX-이음이 서울역까지 연장하여 운행  
②추가로, 청량리~강릉·동해·안동역 KTX-이음 왕복 1회씩, 청량리~안동 ITX-마음 1회 증편
- 또한, “내년에 중앙선 안동~영천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중앙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2의 경부축으로 성장할 것”이라면서, “앞으로도 국토 균형발전의 최대 인프라이자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축인 국가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- 이어 박 장관은 서울역 상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열차 운행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“편리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  - 아울러, “연말연시나 설 명절 등 철도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혼잡도 관리 등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”을 강조하면서, “특히, 교통약자가 열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한편, 박 장관은 오후 1시 30분부터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연말연휴 수송대책과 동절기 항공안전 점검을 위한 공항 주기장 제설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.

- 먼저, 박 장관은 한국공항공사 운영본부장으로부터 연휴기간 여객 증가에 대비한 공항 수송대책을 보고받고, 여객용 체크인카운터, 보안 검색대 등도 꼼꼼히 점검하였다.
  - 박 장관은 “연말연시를 맞아 항공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항공기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”을 당부하며,
  - 특히, “손정맥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여객맞춤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·도입하여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”고 주문하였다.
- 이어, 박 장관은 김포공항 ‘제설장비 관리소’에 방문하여 공항 설해대책을 보고받고 제설 장비도 점검하면서, “겨울철 폭설 발생 시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, 겨울철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특히, “겨울철 공항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, 야외 작업자 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-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김포공항 관제탑을 방문하여 “우리나라가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관제사분들의 높은 기량이 큰 역할을 했다”면서, “특히, 폭설·태풍 등 위험 기상에서 안전한 하늘길을 지키기 위해 관제사 여러분들의 섬세한 눈길과 손길이 필요하다”라고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“본격적인 연말 연휴기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” 라고 덧붙였다.

2023. 12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